

◆ 세례성사 (Baptism)

물로 씻는 예식으로 이루어지는 세례, 즉 수세(水洗)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단체에 입적(入籍)하는 입문성사(세례 · 견진 · 성체) 중 최초로 받는 성사이다. 따라서 세례라는 관문을 통함으로써 영세한 자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교회의 모든 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설정하신 은총의 표지이다. 세례는 마치 새로 태어난 어린 아기가 자기 부모로부터 이름을 받아 호적에 올려짐으로써 한 인간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도 비슷하다. 세례를 받은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 성령의 힘으로 경신례를 올리고 그리스도와 운명을 함께 하는 것이다. 또한 일생을 그리스도교인 차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영구적 보증으로서 인호를 받는다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세례관이다.

세례의 기원은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더불어 생겨났다. 성경강림으로 신약의 백성인 교회가 시작될 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시오"(사도 2:38) 하고 외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그곳에 모였던 자들이 주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사도 2:14-42 참조).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요르단강에서 요한 세례자에게 세례를 받았고 이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그에게 임하셨다. 그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마르 1:9-10, 마태 3:13-17, 루가 3:21-22).

교회법적으로는 자연수로써 물을 부어서 씻든(주부식) 혹은 온 몸을 담그어서 씻든(침례식) 또는 뿌려서 씻든 수세자를 물로 씻기면서 교회의 올바른 지향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삼위일체적 형식을 사용해서 준다면 유효한 세례다. 이와 같이 집전된 세례가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건 또는 밖에서 이루어졌건 다 같이 유효하다. 전례적으로 규정된 모든 예식과 예절에 의해서 집전되는 세례는 성대한 세례라 한다. 성대한 세례의 정상적 주례자는 주교,

사제, 부제이다. 그리고 죽을 위험 중에 물로 씻기면서 성삼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는 대세라 한다(단순세례). 이러한 경우에 가능하다면 교회의 회장이 주는 것이 좋으나, 위급한 경우에는 아무 신자나 줄 수 있고 신자가 없는 경우라면 신자가 아닌 사람도 교회의 지향으로 주면 유효한 세례다.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죽은 사람 외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의심이 나면 조건부 세례를 줄 수 있다. 대인 영세자는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배우고 신앙생활을 익혀 신앙을 고백한 후 세례를 받아야 한다. 철이 나지 않은 어린이는 부모와 교회 공동체의 신앙 안에서 세례를 받는다. 신자 부모는 자기 어린이의 세례식에 참여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어린이의 장래 신앙교육의 책임을 진다. 성인이건 유아이건 수세자에게는 대부, 대모를 세워 부모와 함께 그의 장래 신앙생활을 돕게 한다.

◆ 세례명 (baptismal name)

가톨릭 신자들이 세례 때 받는 이름. 세례 의식 중에 사제(司祭)가 세례자의 이름을 부르는 관습이 생기면서, 교회는 세례자에게 성인(聖人)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을 장려하였다. 13세기 이래로 보편화되어 교회법에서도 이를 명하고 있다. 세례 때 새로운 이름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하며, 이름의 변화가 그 사람의 변화를 말해 주던 성서적 사실에 그 근거를 찾아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아브람이 아브라함(창세 17:5)으로, 시몬이 베드로(마태 16:18)로, 사울이 바울로로 바뀌었다. 또한 성서에 개인의 이름이 가지는 영적인 중요성이 여러 곳에서 강조되며 개인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부여된 소명(召命)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자신의 이름이 가지는 종교적인 중요성에 유의하여, 세례 때 좋아하는 성인의 이름을 택해, 일생 동안 그 성인을 자신의 수호성인으로 특별히 공경하고 보호 받으며 그 품행과 성덕(聖德)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 대부모 (god parents)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받는 사람과 신친(神親) 관계를 맺어 신앙생활을 돕는 후견인을 말한다.

이 가운데 남자 후견인을 대부, 여자 후견인을 대모라 한다. 교회에 처음으로 입문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는 신심이 깊은 신자의 자상한 지도가 필요하다. 세례와 견진을 받는 입문자를 대자녀(代子女)로 삼고 후견인을 대부모로 하였던 교회의 오랜 관습이 교회법 안에 명문화된 것이다. 세례와 견진성사를 받는 자는 대부모를 두어야 하며, 그 임무는 성사예절에 참여하여 성사를 잘 받도록 돕고 길이 신자 본분을 다하도록 지도하는 일이다(교회법 872, 892조). 성사받는 자는 대부나 대모 중 한 편만으로 충분하나 양자를 모두 가질 수도 있다(교회법 873조). 한국에는 성사받는 자가 남자인 경우는 대부분을, 여자인 경우는 대모만을 갖도록 하였다. 견진을 받는 자는 세례의 대부모를 또한 견진의 대부모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교회법 893조 2항). 대부모가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교회법 874, 893조). 성사받을 자나 그의 부모 혹은 성사 집전자의 지명이 있어야 하며, 이 지명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모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그럴 의사가 있어야 한다. 또 16세에 달한 자여야 하는데 교구장이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가톨릭 신자로서 견진성사를 받고 영성체(領聖體)를 한 자여야 하며, 대부모의 임무를 다하기에 적합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자여야 한다. 교회형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고 성사받을 자의 부모가 아니어야 한다. 대부모와 대자녀 간의 신친관계는 혼인장애 사유가 된다.

♥ 우리들의 정성 ♥			
2009년 8 월 2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665.00
교 무 금	:	\$	700.00 196(200) 226(500)
감 사 금	:	\$	500.00 226(500)
성전건립	:	\$	
(성모동산 누계	:	\$	1725.00)
합 계	:	\$	1865.00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주보성인인 성 정 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쁜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 주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제의 해」를 지내면서 드리는 사제를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 아멘.

본당소식

◎ 오늘 미사 후에 각 구역장 및 단체장 간담회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빠짐없이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의제 : 본당 창립 기념 준비

◎ 온타리오 한인 성당 합동 신앙대회

일시 : 9월 5일(토) 오후 1시 미사

장소 : Midland Martyrs Shrine

문의 : 한택중(막시모) 또는 본당 인터넷 (굿뉴스)게시판 참조

◎ 본당 창립 기념 신앙 특강

일시 : 8월 30일(주일) 오후 5시 미사 중

주제 : 신앙인의 자세

강사 : 이현하(야고버) 종신부제

◎ 세례 및 견진성사 안내

▶ 유아세례 - 8월 9일(주일)

▶ 성인 세례식 - 9월 13일(주일)

▶ 견진성사 - 9월 20일(주일)

◎ 런던한인성당 친선골프대회 협조 안내

일시 : 9월 2일(수) 오후 12시 30분

장소 : Feco Valley Golf CC

◎ 2009년 여성 꾸르실료 주말 신청 안내

일시 : 10월 15일(목) - 10월 18일(주일)

장소 : Queen of Apostles Renewal Centre

신청마감 : 9월 15일 (화)

참가비 : \$ 320.00

문의: 울뜨레야 간사 (김현태 요셉)

◎ 영명축일 명단을 게시판에 붙여 놓았습니다. 누락 및 정정이 필요한 교우들은 명단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 성가대에서 알려드립니다.

PARISH LIFE CENTRE 기금 마련을 위해 ST. ANTHONY DANIEL 성당 주최로 우리 본당 성가대와 EASTWOOD HIGH SCHOOL 합창단이 공동으로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 11월 13일 (금) 7시 30분

문의 : 문혜라(크리스티나) ☎ 519 208 0565

◎ 견진성사 신청안내

오는 9월 20일(주일) 본당 창립기념미사 때 견진성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견진교리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오니 구역장들께서는 견진 대상자를 파악해 주시고, 총구역장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성당, 교육관 출입문 이용 안내

전자키 패스워드는 사목회장, 부회장, 총무, 관리분과장에게 문의하시면 알려드립니다.

◎ 8월 안내 담당은 워털루 1구역입니다.

▶ 9월 : 워털루 3구역

▶ 10월 : 워털루 2구역

◎ 교육관 관리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워털루 1구역 : 8월

▶ 워털루 2구역 : 9월

◎ 인천박문여고 학생들이 여학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오늘 8월 12일(수)에 귀국합니다. 도움을 주신 St. Anthony Daniel 성당 주임신부님과 우리 본당 교우 여러분, 지역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또 찾아올 수 있는 따뜻한 본당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 평일미사에 많은 참례바랍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참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성당 출입문을 전자키로 교체했으니 많은 교우들이 성체 조배를 생활화하기를 바랍니다.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주임신부 김선호 루카
✉ lucasmuse@korea.com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519 758 9526
사무봉사자 ☎ 519 894 3533

2009년도 사목지침

“말씀과 성체 안에서 본당 토대 다지기”

실천사항

1. 성서 쓰기, 읽기
2. 평일미사 참례하기
3. 주요기도문 다시 외우기

주일 미사	주일 오후 5시
평일 미사	수 오전 10시
	금 오후 8시
유아 세례	1주일 전 신청
병자 성사	상시
혼인 성사	10개월 전 신청
예비자교리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충
고해성사	미사 전 20분
축복식(차량,주택,가게)	1주일 전 신청

22009-34호

2009. 8. 9.

연중 제 19주일

미사전례

해설 노재현 차주 해설 이민

성가

입당 (2) 주 하느님 크시도다
봉헌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성체 (177)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
퇴장 (68)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화답송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영성체송 주님은 당신 가족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어 줄,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을 세우셨네.

독서	독서
8월 9일 김현태	김진선
8월 16일 최우석	최연옥

봉헌	봉헌
8월 9일 이동기	이정숙
8월 16일 김현태	김진선

축복	축복
8월 9일 최예슬	이수민
8월 16일 안아림	김건우